



# 광남일보



주간 제 8078 호 대표전화 062-370-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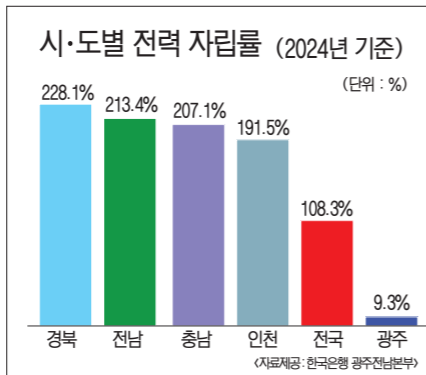
GwangNam.co.kr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음력 3월 20일)

## 전남의 '남아도는 전력'...기업유치로 수요 창출해야

### 전력자립률 213%에도 송전망 막혀 출력제어 반복 광주 9.3% 전력 부족...한 생활권 수급 불균형 심화 지역별 차등요금 도입 확산...“지산지소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불리는 전남의 전력자립률이 200%를 돌파하면서 ‘공급 과잉에 따른 계통 질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생산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외부로 보내지도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남는 전기를 활용할 수요 창출이 지역 경제의 최대 과제라고 보고 있다.



5월 지역 산업계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의 전력자립률은 213.4%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당장 오는 7월부터 같은 생활권인 광주 외의 격차도 극명하다.

광주의 전력자립률은 9.3%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면서 한 생활권 내에서 ‘과잉과 부족’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될 전망이다.

현재 전력 발전량은 전남에 집중돼 있다. 전남의 VRE(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8.21TWh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반면 광주는 365GWh(전국 11위, 특광역시 2위)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이 같은 전력 과잉이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발전량은 늘었지만, 수도권 등 주요 수요지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망은 부족해 전력 생산량을 줄이는 출력제어가 반복되고 있다.

다만 기업 유치를 위한 계통 부담이 커져

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광주의 VRE 비중은 40.9%로 전국 평균(6.1%)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전남도 11.3% 수준까지 상승했다.

발전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유연성 확보가 요구되지만 송전망과 계통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전기를 버리는’ 비효율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법은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창출’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가 꼽힌다.

데이터센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을 전남에 유치해 남는 전력을 직접 소비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특히 글로벌 RE100 확산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이 풍부한 전남은 관련 산업 입지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기업 유치를 위한 전기요금 경쟁력이다.

현재 전국 단일 요금 체계에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지방 이전에 따른 비용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송전 거리가 먼 지역에는 비용을 더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령도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에서 전기를 끌어오느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수도권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에너지는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되는 ‘지산지소’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력 자립률이 262%에 달하는 경북의 경우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연간 약 60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 역시 전력 자립률을 감안하면 이와 유사한 수준의 산업 유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전망 확충은 여전히 필수 과제로 꼽히지만 실제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막대한 비용과 주민 수용성 문제로 속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업 유치와 차등 요금제를 통한 수요 창출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시된다.

이건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은 “전남의 남는 전력을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 경제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며 “일분처럼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를 반영한 차등 요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꽃길을 걸으며 어린이날 휴일을 맞아 5일 오후 전남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 함평나비대축제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형형색색의 활짝핀 꽃길을 걸으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을 주제로 열린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는 아르메니아, 메리골드 등 29종의 초화류 90만본과 긴꼬리제비나비,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등 23종 25만마리의 나비, 곤충을 한자리에 선보였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지역 건설사, 경영난 심화...올해만 40곳 문 닫아

### 고금리·미분양·중동리스크 ‘도미노 붕괴’ 위기

광주·전남의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축인 건설업계가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하며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악재 속에 미분양 물량까지 쌓인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지역 건설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연쇄 도산하는 ‘줄폐업’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5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 날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폐업을 신청한 종합건설업체는 총 40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2곳, 전남이 28곳으로, 예년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수

치다. 특히 지난해 이미 역대급 폐업 기록을 경신했던 흐름이 올해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현재 지역 건설업계를 가장 괴롭히는 요인은 단연 ‘미분양의 늪’과 ‘자금 경색’이다. 광주 지역의 경우 외곽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분양 대금이 제때 회수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 역시 시군 단위의 미분양 적체 현상이 심화하며 중소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을 막고 있다. 분양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은 부동산 프로핏아웃(ROI) 대출의 문턱을 높였

고,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났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인 이모씨(62)는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처지”라며 “지역 내에서 건설하다고 평가받던 중견 업체들조차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부도설에 휘말리는 등 시장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촉발된 중동 사태는 고사 직전인 건설업계에 결정타를 날렸다. 국제 유가와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멘트, 철근 등 핵심 건설 자재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있으며, 유류비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은 공사 원가를 직격하고 있다.

▶2면으로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내일 국회 표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39년 만에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오는 7일로 예정된 이번 표결은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 3분의 2 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맞서고 있어 지역 염원이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조국

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과 전원외교부·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87명이 지난달 3일 계엄 성립 의견 강화, 부마 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국민

의힘이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는 불투명하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하며,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6월 3일 국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예산 하한 10일까지는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초대석**

**백혜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이 사법부 신뢰할 때까지 개혁 끈 놓지 않겠다”

**회제의 인물**

**이동원** 전국대학생투자동아리연합회 회장  
지방은 왜 불리한가 전남대 학생의 도전

**전남농업이야기**

**최진실** 전남도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연구사  
“두류 신 품종 육성으로 국산화 앞당기겠다”

**남도 예술인**

**이관우** 기타리스트  
“기타 선율로 내 이야기 연주하는 뮤지션 되고 싶다”

2026.05 vol. 156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 전라도人

구독문의: 062)370-7080 광고문의: 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여수 금오도 황금거북 등에 핀 벵랑길 ‘봉산’의 신비 벗다

5월 가정의 달  
생애 첫 공연 확대, 광주에서 영유아 공연은  
“힐링 넘어 경원으로 우리 아끼 상상력 쏘옥”

**커버스토리**  
**박중환**  
남도의병역사박물관장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의병정신 현재로 있는 살아있는 역사공간”

진시·교육·체험 아우르는 대표 의병 전문 박물관 지향 시프로그래밍 확대...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거점